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봄, 나의 선언!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해 졌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길가에 꽃도 피고,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 괜히 마음도 덩달아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봄이 되었다고, 길가에 식물들이 새싹을 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 자리에서 햇빛도 받고, 물도 머금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늘 더 잘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진실한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에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너무 무겁지 않게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따뜻한 봄에, 나에게 선물같이 찾아온 시간 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눠보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봄에, 이번 주에 나는 _____ 해보겠다!”

**[나눔] 이 선언을 한 이유를 나눠주세요.
이 선언을 도와줄 사람을 지목해 보세요.**

교회행사

3월

1일	진공첫 6기 모집 마감
5-21일	해비타트 사역
7일	부부사랑 학교 개강
8일	진공첫 6기 시작
12/14일	1차 세례 교육
19/21일	2차 세례 교육
21일	세례 문답식
22일	세례식
29일	종려주일 /성찬식
30일-4일	고난주간/고난주간말씀과 기도

4월

5일	부활주일
18일	신중년 야유회
24-25일	목자 수련회

경배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후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선교

[전세계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1. 팀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연합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2.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3. U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4.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가 동역 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소식

1.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모집

오는 8월 15일(토)-21일(금)까지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주(프놈펜에서 10시간 거리, 베트남 접경지역)에서 진행될 의료, 미용,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들을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훈 목사 010-5025-1824

2. 선교학교 학생모집

더비기닝 선교학교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2026 더깊은 선교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더비기닝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문의 : 이흥기 목사 010-5494-1413

한 문장 큰 울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참된 열매의 비밀이다”

-앤드류 머레이
(Andrew Murray)-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은 단독으로 떼어 읽기보다 13-17장에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13-14장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15-16장은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17장은 장차 닥칠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드리시는 중보기도(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여 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15장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핵심 장으로 읽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을 예로 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도, ‘예수님 안에 거함’과 ‘말씀이 안에 거함’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든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간구로 연결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1. “거하다(메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15장 전반은 “거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본문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삶’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지 특정 시간이나 장소(예배 시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 다시 말해 지속적인 교제와 연결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지 않게 될 상황에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기에, 예수님은 이 “거함”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5절)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이 열매 맺는 생명의 근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배경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의 양분이 흘러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이유도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한이 없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거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순종이라면, 이번 주에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3. 거함의 열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

예수님은 순종을 강조하신 뒤, 그 순종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17절)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며, 특히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막연히 ‘세상을 사랑하라’는 구호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감정적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13절)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며, 제자들의 사랑 역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이어야 함을 드러냅니다. 즉, 내 감정과 욕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방향이 ‘거함의 열매’로 요청됩니다.

[나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목장안에서 적용한다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될 시대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되고, 그 순종은 서로 사랑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인간의 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해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이며,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나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거함의 구체성: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거하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의미를 분명히 풀어 주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10절)라는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즉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나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 요한복음 15장 1~17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순종으로 확인되는 거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공동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